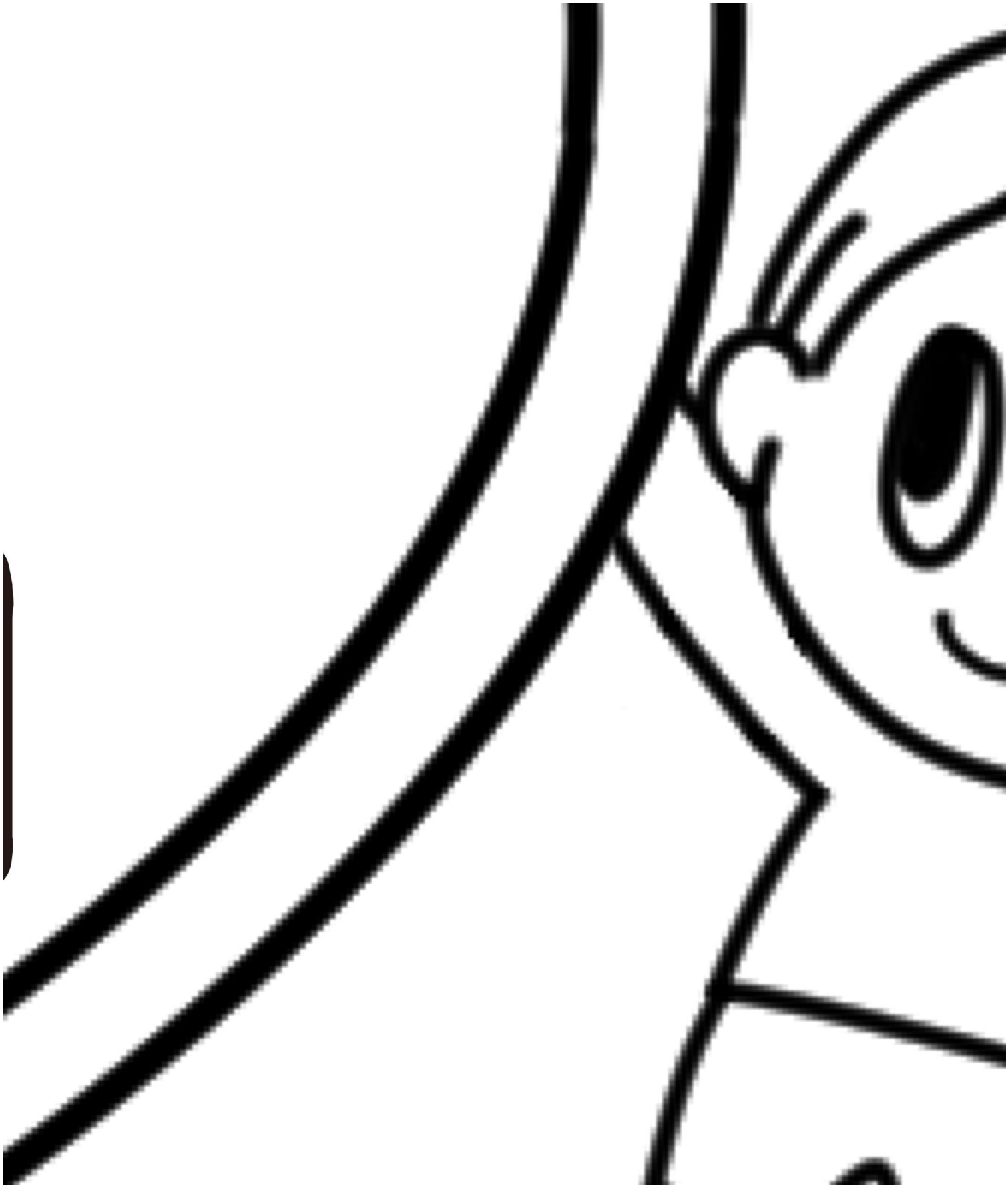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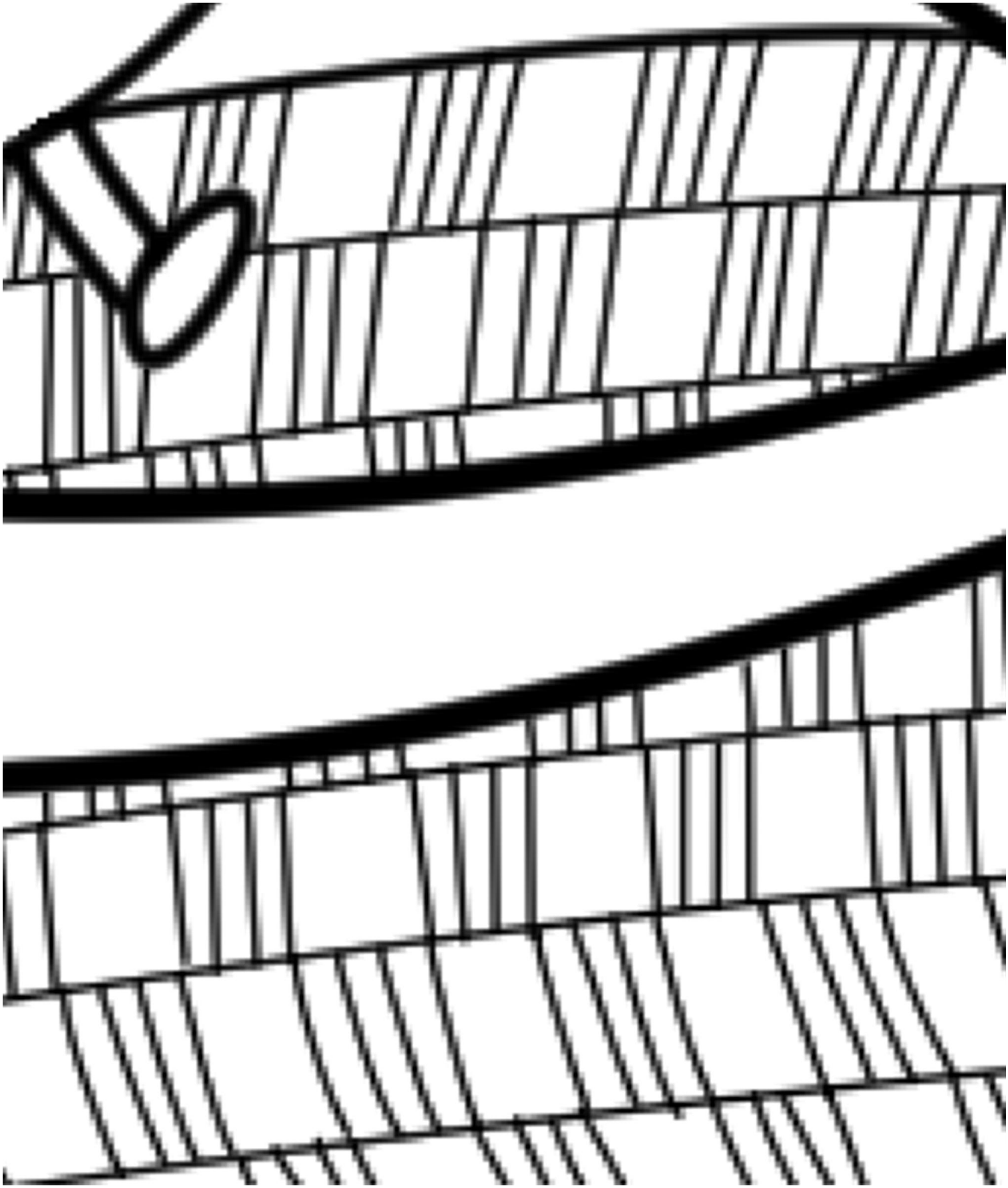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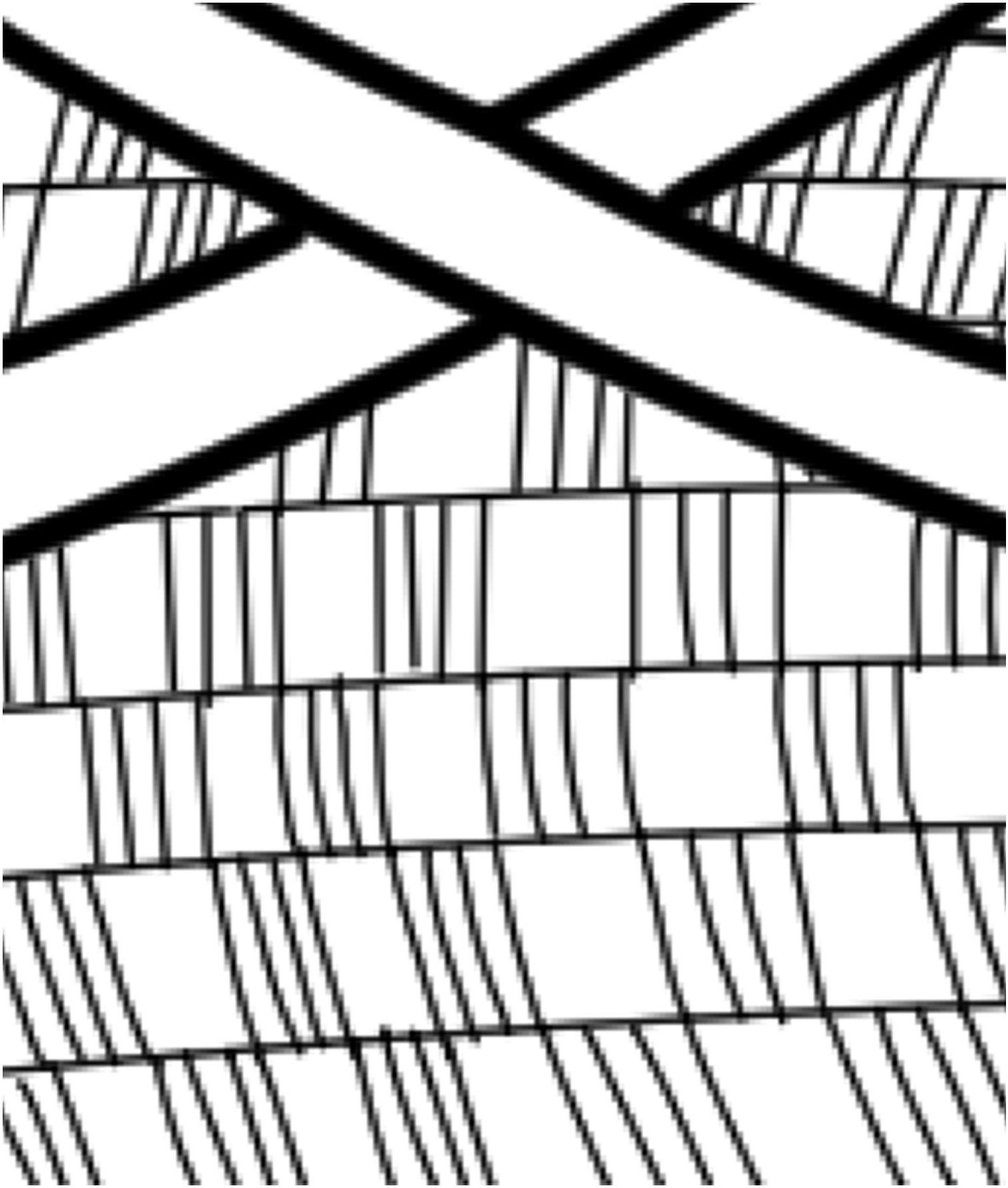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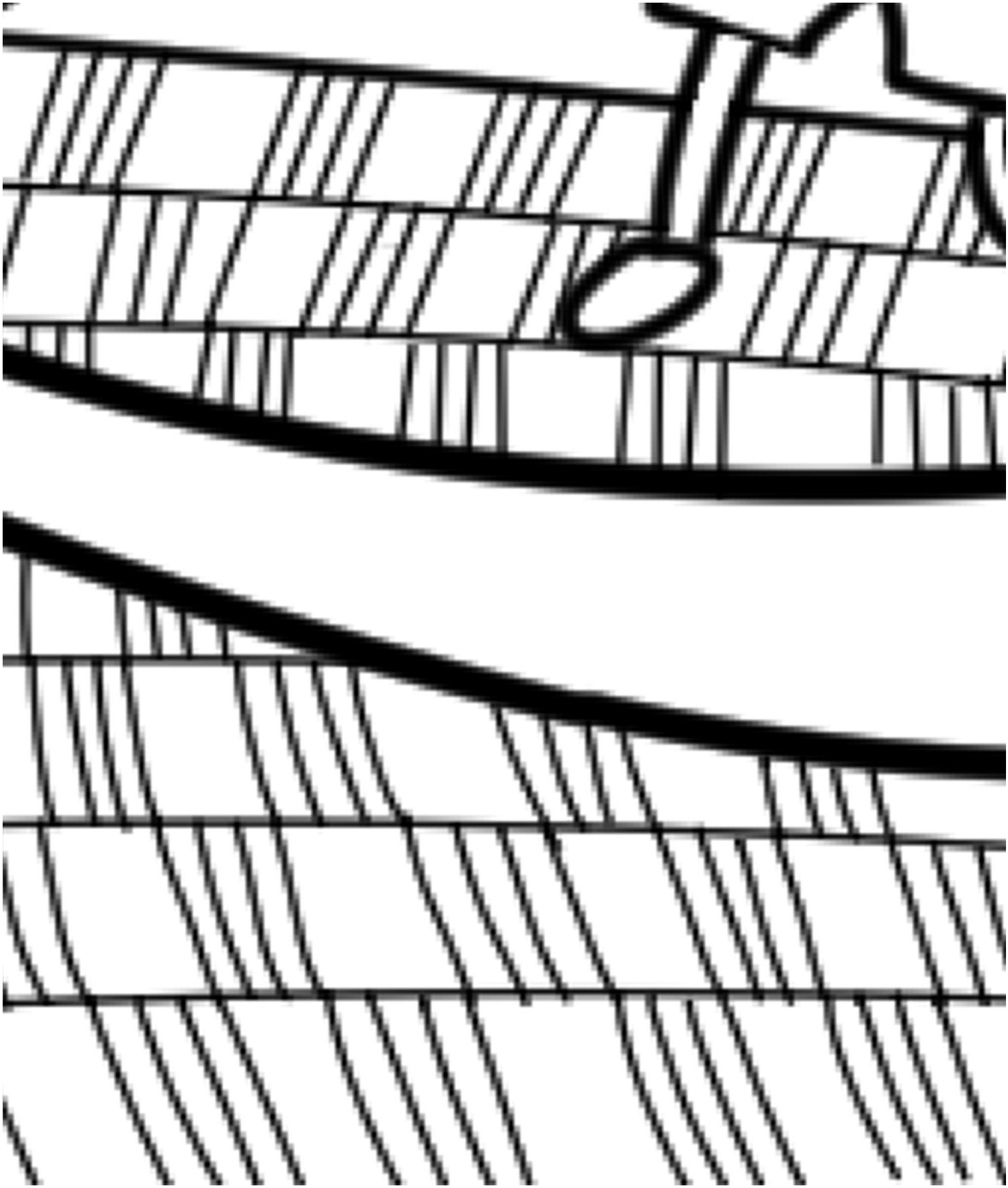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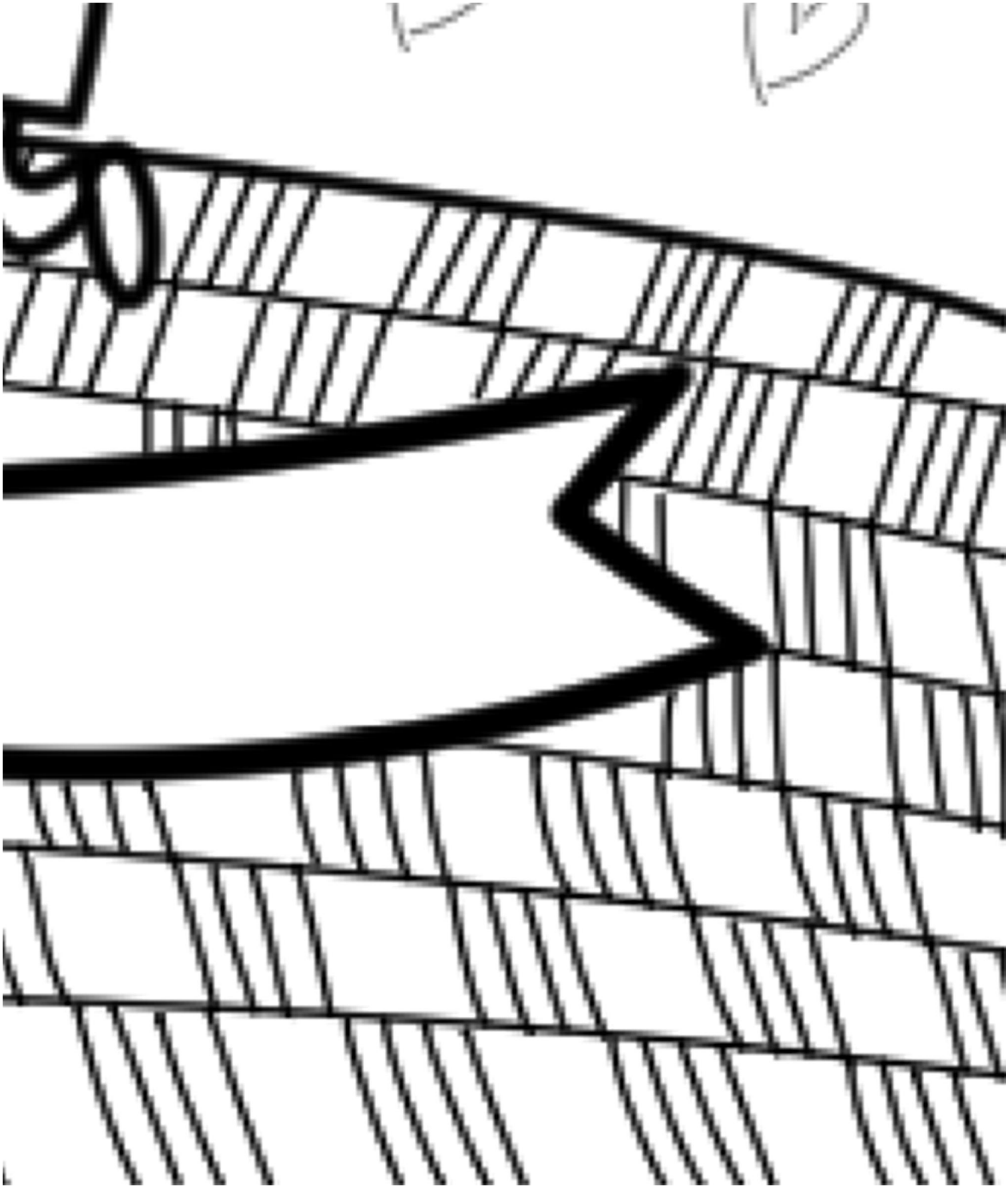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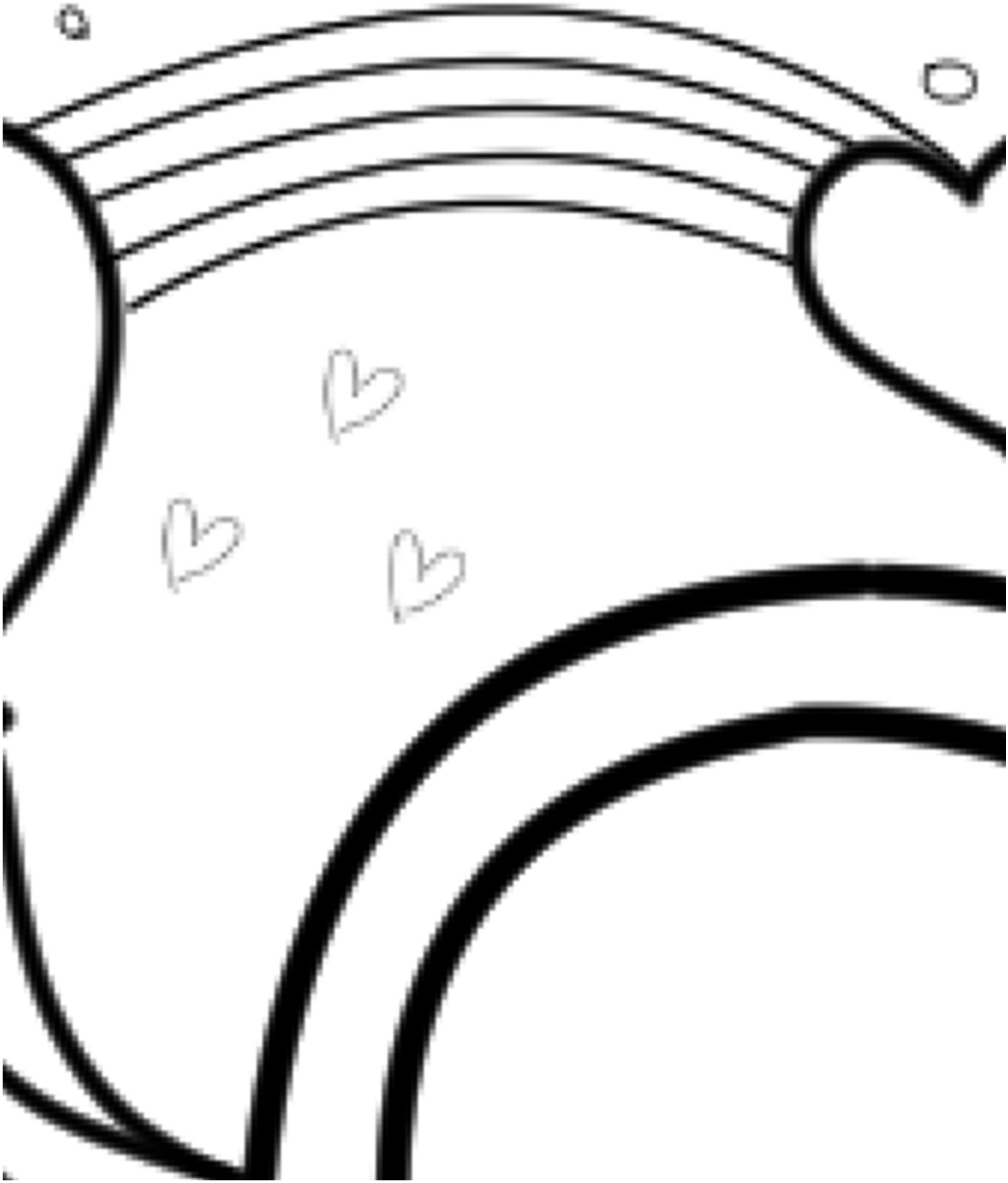
친구야

사랑해